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하반기에 등록한 새교우를 위한 환영회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사전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입교교육은 21일 오후 3시입니다.

2014년 교우전화부를 만듭니다. 번호가 바뀐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묵상집 [헤른후트 기도서]를 신청 받습니다. 가격은 권당 5,000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 맞이 축하행사가 다음 주일(22일) 오후 2시에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을 위해 좀 더 후원과 도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 35:1~10 / 눅 1:47~55
약 5:7~10 / 마 11:2~11

요일 2:28-3:6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7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점점 어둡고 추워지는 세상 속에서 밝고 따스한 생명의 빛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환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냉랭해지는 가슴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권력과 자리를 지키려 그릇된 일을 서슴지 않는 권력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존재를 절대화하며 그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짚어내고 처형하는 만행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본인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경희 권미정 김경수 김성한 조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류준모 심호선 문복순 송형운 하미림 신진식 변혜정 오미경 오진훈
 노순옥 원용일 최현선 유상진 유은정 이국노 김민화 이예서 이용현
 이윤석 박안수 이재훈 이호원 임창선 정완수 김재광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조경자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한상경 LK

감사

강순배 김대규 박경애 김용훈 오정은 김인석 이선화 김향자 서정제
 임성은 시시권 백경임 유영남 이원재 염보미 이유일 김미희 이윤석
 박안수 전인섭 정영례 조준수 황경순 무명6

생일

박성실 정영우 김지윤 조관행 홍선희

녹색꿈

강영님 김정진 김혜정 김향자 민병배 문현미 신진식 변혜정 임창선
 조항범 무명2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연합속회	섬
--	--	--	------	---

지구

- 박용하

달 호텔에서 지구를 보면 우편엽서 한 장 같다. 나뭇잎 한 장 같다. 혹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 별이 아직은 은하계의 오아시스인 모양이다. 우주의 샘물인 모양이다. 지구 여관에 깃들여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만원이다. 방이 없어 떠나는 새 · 나무 · 파도 · 두꺼비 · 호랑이 · 표범 · 돌고래 · 청개구리 · 콩새 · 사탕단풍나무 · 바람꽃 · 무지개 · 우렁이 · 가재 · 반딧불이 많기도 하다. 달 호텔 테라스에서 턱을 괴고 쳐다본 지구는 쓸 수 있는 말만 적을 수 있는 엽서 한 잎 같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처음이고 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욕심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맑고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어서 찾아와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옴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안정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익 장로	권미정 집사 강세기 집사

12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은 김현동 오유경 이해령 박시내
	헌금위원	김인걸 강순배

믿음으로 읽는 글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축의 시대’(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한 시기) 현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비의 영성을 계발하는 것을 그들의 의제의 맨 위에 두었다. 그들에게 종교란 곧 황금률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초월해야 하는 대상 - 탐욕, 자기중심주의, 증오, 폭력 - 에 집중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초월하여 이르게 되는 곳은 쉽게 규정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에고 원리의 함정에 갇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였다. 사람들이 초월하여 이르고자 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 관해 교조적이 되면, 공연히 캐묻기만 하며 삐걱댈 수 있었다. ...

그렇다고 모든 신학을 없애야 한다거나, 신이나 궁극적인 것에 관한 관습적인 믿음들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런 믿음들은 진실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월적 가치는 그 본성상 정의(define) - 원래의 의미가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교조적 정통성을 매우 중시하며, 많은 기독교인이 종교를 상상할 때면 관습적인 믿음들을 떠올린다. 이것은 물론 좋다. 교조가 심오한 영적 진리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는 시험은 간단하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 세속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호전적이고, 편협하고,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념 때문에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낮은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좋고, 도움이 되고, 건전한 것이다. 이것이 모든 주요 전통의 진정한 종교성을 검증하는 잣대다.

우리는 종교적 교리를 버리는 대신, 그 영적 핵심을 찾아보아야 한다. 종교적 가르침은 결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 강령이다. 바울로가 필리피 사람들에게 초기 기독교 찬송가를 인용한 것은 성육신에 관한 율법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케노시스(자기비움)을 실천하라고 촉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믿음의 진실을 발견할 수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 또한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에게 하느님을 단순한 인격체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 신의 본질은 그들의 이해 너머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관계나 공동체의 맥락에서 신을 보려는 시도로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핵심에서 케노시스를 분별해냈다. 그러나 이 교리의 목적은 명상과 윤리적 행동을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서기 14세기 그리스 정교 신학자들은 축의 시대의 핵심과 바로 이어지는 신학 원리를 개발했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한 모든 진술에는 두 가지 특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것은 역설적이어야 했다. 신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범주에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이어야 했다. 우리가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 년에 걸친 제도적, 정치적, 지적 발전은 종교에서 자비의 중요성을 흐릿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 공중의 담론을 지배해 온 종교는 제도적 자기중심주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신앙이 너의 신앙보다 낫다!’ 장자가 주목했듯이, 사람들은 신앙에 자신을 던져 넣으면, 시비를 걸고, 간섭을 하고, 심지어 불친절해질 수도 있다. 자비는 인기 있는 덕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와 동일시하는 에고를 옆으로 밀어놓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비를 보이기보다는 옳은 쪽을 선호한다. 근본주의적 종교는 우리 시대의 폭력을 흡수하여 극단화된 전망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초기 조로아스터교도처럼 인류를 두 적대적 진영으로 나누고, 신자들의 진영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항하여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고 본다.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르며 목격했듯이, 이런 태도는 곧바로 잔혹 행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것은 또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도덕경>이 지적했듯이, 폭력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보통 폭력을 휘두른 자에게 되돌아간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실제로 강제 수단은 사람들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 ...

고난은 말끔하고 합리적인 신학을 박살낸다. ... 아우슈비츠, 보스니아, 세계무역센터 파괴는 인간 마음의 어둠을 드러냈다. 오늘날 우리는 비극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인이 알고 있었듯이 여기에는 간단한 답이 있을 수 없다. 비극이라는 장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것을 요구한다. 종교가 우리의 부서진 세계에 빛을 가져오게 하려면, 맹자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사라진 마음, 우리의 모든 전통의 핵심에 놓여 있는 자비의 정신을 찾으려 나서야 한다.